

오피니언

다산포럼

이률태림



'6월 항쟁'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매우 진전되었다고 여겼던 21세기 출범점도 10년 가까이 지났다.

임명 과정에서도 "우리가 진정 주권자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느낀다.

신임 KBS 사장에 바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치권력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를 요구한다.

아니라 권위주의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이야기면 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김인규 씨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와 서울 문리대 정치학과 동문이기도 하고, 같은 언론계 출신인 만큼 필자는 그가 능력이 있고 재주도 많은 것을 잘 알

고 있다. 나는 그의 재주를 참 좋아했다. 그가 그 능력을 언론계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발휘한다고 해서 다행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언론 홍보와 언론 정책 참모가 된 이상 '공영방송 KBS 사장 자격'은 잃은 사람이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다. 그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KBS 카메라의 눈을

'국민 쪽에서 권력 쪽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 쪽에서 국민 쪽으로 비추도록 요구할' 것이 그러한 시각에서 보는 뉴스와 해석이 앞으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계 일부에서는 KBS가 당면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권과 밀착한 인사가 경영책임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일 때의 이야기다. '관영 방송화' 또는 '국영 방송화' 할 때, 기왕에 받아오던 수신료 걷는 것조차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김인규 씨는 자신을 위해서나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나, 무엇보다도 한국의 민주화가 더 진전하기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당장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세종시 수정 타도시 피해 현실화 되나

세종시 문제로 충청권은 물론 영호남 할 것 없이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세종시 대안으로 '교육과학중심경제 도시'가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광주 R&D특구 지정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대통령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에 따른 지방의 피해는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혁신도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면 혁신도시 기반시설비의 집행실적이 매년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대안으로 '교육과학중심경제 도시'가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광주 R&D특구 지정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대통령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에 따른 지방의 피해는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혁신도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강 병연



청소년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다.

학업시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의 삶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이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첫째, 가정에서는 오랜만에 온가족이 모여 앉아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와 대화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주지해야 할 점은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자선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국가와 사회에서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만 아니라 거리에 나선 모든 청소년들을 감싸 안아야 할 책임이 있다.

'가족 유대감'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경쟁력을 갖추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주지해야 할 점은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자선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사회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또래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추천하여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만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2008년 청소년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도 61만9천208명이었던 상담 건수는 10년이 지난 2008년도에는 약 400만명으로 늘어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디자인하는 개인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모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여가활동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주지해야 할 점은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자선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아이들이 늦잠 자고 빈둥거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모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여가활동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아이들이 늦잠 자고 빈둥거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모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여가활동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지친 아이들에게 공휴일 하루 '모험'을 선물하자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아이들이 늦잠 자고 빈둥거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모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여가활동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아이들에게 한번 '모험'을 시켜보자. 예를 들어 국토체험 등산을 시켜보거나 대지에서 비상하는 겨울 철새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생태체험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모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여가활동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기고

임창주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4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유해성이 없거나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도

해마다 무수히 많은 법률이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제정되고는 있지만 사회가 변화하여 더 이상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법률들이 폐지되는 것은 목격하기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도

법률 군살빼기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하는 두려움, 법률에 의해서 규율해야 할 자유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다른 생활영역과는 달리 사생활, 특히 성적 사생활 영역에서 형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형벌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점은 일정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와 사회가 그 행위를 긍정하거나 도덕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행위가 비록 도덕물에 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부처당 한 법률규정의 폐지와 온건한 법운용을 목표로 한 법률의 '군살빼기'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해본다.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행위가 비록 도덕물에 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부처당 한 법률규정의 폐지와 온건한 법운용을 목표로 한 법률의 '군살빼기'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해본다.

과속방지턱 규격맞게 설치해 차량 파손 줄여야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주택이나 도로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설치해 놓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운전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도로에서는 시속 30킬로만 달려도 차가 망가진다. 원래 과속방지턱은 원형으로 해서 폭이 3.6m이고 높이는 10cm의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설치규정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고 거의 다 높게만 설치해 놨기 때문에 문제다.

이러한 도로에서는 시속 30킬로만 달려도 차가 망가진다. 원래 과속방지턱은 원형으로 해서 폭이 3.6m이고 높이는 10cm의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이러한 도로에서는 시속 30킬로만 달려도 차가 망가진다. 원래 과속방지턱은 원형으로 해서 폭이 3.6m이고 높이는 10cm의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無等鼓

'모든 일을 미리 헤아려 살피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신은 몸을 굽혀서 돌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 일을 이루고 못 이루, 이롭고 해로운에 대해서는 미리 내다보는 데 밝지 못합니다'

제갈공명의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더라도 요즘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출사표'가 나오고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제갈공명의 '후출사표(後出師表) 마지막 구절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김성수의 원인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해 당내 경선의 신호탄이 터졌다.

출사표



중국어삼국지 촉한의 유비(劉備)가 죽은 뒤, 승상인 제갈공명은 그 뜻을 받들어 위(魏)나라 정벌에 나서며 유비의 아들 유선(劉禪)에게 출정을 앞두고 출사표를 바친다.

제갈공명의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더라도 요즘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출사표'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지략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던 제갈공명은 출사표에서 결과를 불문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광주만 해도 민주당 후보로 시장선거에 나섰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10여 명에 이른 다.

특히 당대 최고의 지략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던 제갈공명은 출사표에서 결과를 불문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광주만 해도 민주당 후보로 시장선거에 나섰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10여 명에 이른 다.

그러나 출사표에서 제갈공명은 승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臣鞠躬盡力 死而後

승지는 늘 한 사람 뿐이다. 이 대목에서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곱씹어볼 만하다.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